지스트신문

발행인 : 임 기 철
주 간 : 홍 성 민
편집장 : 이 다 연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과기로123 1학생회관 3층

제 70 호 www.gistnews.co.kr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대 학
GIST 학부생 창업팀 ROOTIVE > 2 면

학 술
폐암의 '종양 친화적' 미세환경 규명 > 4 면

사 회
스타벅스, 5·18에 '탱크데이' 마케팅 > 5 면

기 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온다 > 6 면

삽화 = 장은우 기자

제1회 지켄전, 두 학교를 잇는 새로운 연대

지난 5월 16일, GIST와 KENTECH의 첫 연합 체육대회인 '지켄전'이 GIST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양교 학생들은 경기 결과를 넘어 서로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을 나누고, 학생사회 간 협력과 교류의 첫걸음을 뗐다.

제1회 지켄전, 그 뜨거운 현장

지켄전에서는 축구, 배드민턴, 농구까지 총 세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GIST는 축구에서 1:0, 배드민턴의 전 종목에서 2:0, 농구에서 40:36으로 값진 승리를 얻었다.

결과를 떠나 경기 내내 돋보인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이었다. 축구 종목에 참여한 박선우(도전, 26) 학생은 "모두 신사적인 경기를 하는 것이 좋았다"라며 선의의 경쟁에 참여한 모든 선수에게 박수를 보냈다. 혼성 배드민턴 선수로 참가한 한 KENTECH 학생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지켄전을 만든 사람들

GIST와 KENTECH은 지난 2024년 공동 학술교류제를 개최했다. KENTECH 총학생회 황의현 준비위원장(이하 KENTECH 준비위원장)은 학술교류제와 시너지를 내고자 "1학기에는 '체육의 교류'를, 2학기에는 '지성의 교류'를 축으로 삼아 양교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싶다"라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김연우 비상대책위원장(이하 GIST 비대위장)은 "기존 교류를 더 넓은 학생 참여형 교류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지켄전을 기획했다"라며 전공과 활동의 관계없이 많은 학생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켄전은 '경쟁'보다 '교류'라며 앞으로 두 학교가 만들어 갈 관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 과정에서도 양교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졌다. KENTECH 준비위원장은 "든든한 협력관계 덕분"이라며 앞으로의 축제를 함께 준비하는 데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언급했다. GIST 비대위장은 "단순히 하나의 행사를 공동 운영한 것을 넘어 학생사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이번 지켄전이 더 다양한 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운영진은 경기 진행보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지만 첫 연합 행사였던 만큼 홍보와 준비 기간에서 제약이 있었다.

두 학교의 운영진은 이번 지켄전을 계기로 체육 분야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KENTECH 준비위원장은 연합체육대회와 더불어 양교 동아리의 연합 공연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예술 문화 분야의 교류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IST 비대위장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양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산업과 기술 발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첫 지켄전의 과제

첫 연합 행사였던 만큼 아쉬움과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양교 운영진 모두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KENTECH 준비위원장은 일정 변동과 준비 부족으로 학우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며, 추후 행사에서는 이를 철저히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체육 중심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 종목을 확대할 계획도 전했다. GIST 비대위장 역시 피구나 줄다리기와 같이 많은 학생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회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상했으나 홍보와 참여 인원 모집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교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경험으로 받아들였다. 향후 학생 참여 범위를 더욱 넓히고 체육 외의 다양한 교류 요소를 추가해 행사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지켄전은 GIST와 KENTECH이 함께한 첫 연합체육대회로서 양교 학생 간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두 학교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져 폭넓은 교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다연 기자
dayeon096@gm.gist.ac.kr

무한도전 프로젝트 2차 공개 평가… "운영 방식 개선 필요"

지난 5월 진행된 11기 무한도전 프로젝트의 2차 공개 평가 과정과 관련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정 운영과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프로젝트의 실제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짚어봤다.

무한도전 프로젝트 진행 과정

무한도전 프로젝트는 3C1P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공모 분야는 '창의적 작품 제작 활동', '3C1P 역량 강화 활동', 지정 공모의 '미리 가 본 Science Flower', 총 세 가지로, GIST 학사과정 재학생이 2~6인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총 34개 팀이 신청했다. 선발은 1차 서류 평가, 2차 공개 발표 평가로 이뤄졌다. 1차 서류 평가는 수행 계획서와 지원 영상으로 진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4월 30일에 2차 평가 대상자가 공지됐다. 2차 공개 평가는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발표 및 질의응답, 그리고 학생 대상 투표로 진행됐다. 평가위원들이 각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듣고 서류상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는 형식이었으며, 이와 동시에 학생 대상 인터넷 투표가 이뤄졌다.

2차 평가를 둘러싼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 사이에서는 무한도전 프로젝트 2차 평가 과정의 일정 및 시간 부족 문제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11기 무한도전 프로젝트의 2차 평가 과정은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진행됐던 10기 때와 달리 수업이 활발히 이뤄진 5월 6일 수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이틀간 15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됐다. 이 변화로 일부 팀들은 소수 인원만 참석하거나 아예 불참했고, 평가위원들 또한 참여하지 못해 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했다.

일부 학생들은 전달받은 평가 시간이 팀원 모두의 수업 시간과 겹쳐 팀장이 교수님께 직접 양해를 구해 평가에 참여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2차 공개 평가 일정이 1, 2학년 필수 프로그램과 겹쳐 학생팀에 문의했으나,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학생들은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게 되면서 팀의 역량과 연구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풍부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평가위원의 늦은 참석과 길어진 질의응답 과정으로 인해, 2차 발표 시간으로 공지받은 시간에 학생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팀이 평가받지 못한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추가로 교수들이 참여하지 못한 시간이 많아 실질적인 평가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학생들은 앞으로 무한도전 프로젝트의 2차 평가가 평가위원 및 학생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진행되도록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담당자의 의견 및 향후 개선 방향

무한도전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일정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일정을 다시 변경할 경우, 학생과 평가위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평가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기존 일정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생팀은 2차 공개 평가에 선발됐던 34개 팀의 발표를 모두 듣기 힘든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차 대면 평가 때 신청서와 지원 영상을 통한 평가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점수 부여가 진행됐기에, 2차 공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무한도전 프로젝트 담당자는 내년에도 공개 발표회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팀원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수업 시간을 여러 모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기자
sjunlee7106@gm.gist.ac.kr

GIST 학부생 창업팀 ROOTIVE, SK 인텔릭스와 사업성 실증 착수

GIST 학부생들이 소속된 창업팀 ROOTIVE가 개발한 스마트팜 어플 '마이리틀가든'이 SK 인텔릭스와 실증 과정에 착수했다. ROOTIVE는 GIST 무한도전에서 출발해 창업경진대회, 해커톤에서 다수 성과를 거둔 학부생 창업팀이다.

사진 제공 = 매일 경제

ROOTIVE의 마이리틀가든

GIST와 KAIST 학부생이 모인 학생 창업팀 ROOTIVE(이하 루티브팀)이 개발한 스마트팜 어플 '마이리틀가든'이 SK인텔릭스와 실증 과정에 착수했다. 마이리틀가든은 식물을 기르는 가정에서 사진을 찍는 간단한 행위로 식물의 종 인식, 생육 진단, 맞춤형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는 스마트팜 앱 서비스다. 더불어 마이리틀가든은 사용자가 식물을 기르는 과정에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형 챗봇 기능 등 다양한 사용자 친화 기능을 앱 서비스에 탑재할 예정이다.

SK인텔릭스와의 협약은 해커톤 행사에서 출발했다. SK인텔릭스가 주최한 1st NAMUHX 해커톤의 행사 이후로 SK 측은 A1로봇에 마이리틀가든 서비스를 탑재하는 형태로 앱 서비스 공동 개발을 루티브팀에게 제안했다. 루티브팀은 자체 논의를 거쳐 제안을 받아들인 후 현재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 공동 개발 협약 PoC개발 협약을 맺고 실증을 거치는 개발 과정 중이다.

무한도전이 만들어 낸 ROOTIVE, 시작과 그 과정

루티브의 첫 시작은 GIST 무한도전 프로젝트다. 루티브 CSO 최재원대표(이하 최 대표)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무한도전의 슬로건에서 출발해 자율주제 탐구 프로젝트를 첫 시작하게 됐다"라고 언급하며 루티브의 첫 시작인 G-쿠아리움을 꾸렸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무한도전의 활동이 단순히 연구 결과물로 남기보다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할 서비스로 개발될 가능성을 팀원과 함께 엿보았다. 논의를 통해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꿔 지금의 형태로 발전됐다. GIST만의 특색 프로젝트가 존재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생각해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G-쿠아리움은 단순히 무한도전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남지 않고, 이후 학부 예비 창업팀 루티브팀으로 확장됐다. 학부생 수준의 한계가 존재하는 창업 분야에서 루티브팀에게 무한도전의 프로젝트 지원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도약점이 됐다.

무한도전 이후 확장된 루티브 팀은 메인 창업 아이디어인 AI 기반 홈가드닝 솔루션 '마이리틀가든'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이어나갔다. 전국 단위 창업경진대회 DMC Innovation Camp 2025에서 예비 창업팀 73팀 중 최우수상(2등상)을 수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속 성장 프로그램에 선정돼 관련 사업 고도화를 시작했다. 이후 개발을 거쳐 SK 인텔릭스가 주관한 1st NAMUHX 해커톤에서 우수상으로 입상하게 돼 SK 인텔릭스와의 PoC협약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루티브팀의 무한도전 이후 성과는 단순한 독립이나 확장이 아닌, 교내의 지원과 팀원들의 협동심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최 대표

〈3면에 계속〉

는 "원내 창업진흥센터와 EECS 소재웅 지도교수님 등을 통해 큰 지원을 받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큰 열정을 품고 사업을 추진할 힘을 얻게 됐다"라고 밝혔다.

초기 무한도전, 이후 해커톤과 창업경진대회를 거친 루티브팀의 마이리틀가든은 현재도 사업성을 위해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고 있다. 최 대표는 "매 기회마다 아이디어 세부 피드백을 거치며 서비스 개발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루티브팀은 현재 2026년도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Tex-Corps)에 선정돼 시장 수요조사, 인터뷰 과정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부합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학부생으로 이루어진 루티브팀의 열정

루티브팀은 GIST와 KAIST의 1~3학년 학부생으로만 이루어진 팀이다. 학부생으로만 이루어진 팀 프로젝트가 창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루티브팀은 어떠한 요령이나 경험이 없는 학부생들로 구성됐고, 대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을 병행하며 시간을 배분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하지만 루티브팀이 분명한 성과를 낸 비결에 대해 최 대표는 '소통하는 힘'을 말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소통하고 조율하는 피드백 과정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팀 내에서 거리낌 없이 적극적인 소통이 오간 문화가 어려움을 극복해 지금의 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루티브팀은 학부생으로 이루어진 까닭으로 열정이라는 강점이 존재한다. "루티브팀의 독특한 구성이 청년 창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활성화되는 상황과 어우러져 여러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이 충분한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루티브팀의 추후 계획과 실증 단계 이후에 대해 최 대표는 "아직 명확히 결정된 바는 없다. 하지만 루티브팀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형 창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도전 가능한 청년 창업 시대 활성화에 앞장서는 창업팀으로서 지금의 열정을 잃지 않겠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나타냈다.

이유림 기자
yourimlee@gm.gist.ac.kr

철학과 미학으로 삶을 묻다
인문사회과학부 안강훈 교수 신규 부임

2026년 봄학기, GIST 인문사회과학부의 신임 교수로 안강훈 교수가 부임했다. 동서양, 고대와 현대의 철학과 예술에 관한 철학을 연구하는 안강훈 교수의 GIST 부임 배경과 계획을 알아봤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인 '동서양 비교철학 및 미학'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철학은 쉽게 말해 인간, 운명, 존재 같은 보편적인 것에 대해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다만 철학은 삶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닙니다. 모든 철학적 질문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측면을 갖기 때문입니다. 제 연구 분야인 동서양 비교철학은 이러한 철학적 질문들을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를 함께 살피며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미학은 예술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술은 생존에 필수적이진 않지만, 더 나은 삶을 꿈꿀 때 필요한 영역입니다. 칸트는 "내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인간이 삶의 질이라는 관점을 넘어 자신의 최대치를 살고자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술은 인간이 자신의 최대치를 살도록 돕기 때문에, 미학 또한 중요한 학문입니다. 동서양 비교철학 및 미학은 동서양의 현대 및 고대의 철학을 통해 철학적 질문들을 해결하고, 예술을 통해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학문입니다.

동아시아어문명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인문학 중 철학과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양철학이나 미학을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양권에 살면서도 서양철학보다 동양철학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의 화려한 그림은 다양한 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의 아름다움의 이유를 찾기 쉽습니다. 동양의 수묵화 또한 화선지와 먹뿐이지만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아름다움을 설명하기엔 막막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고 싶어 남들이 가지 않은 동양철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철학이나 미학은 결국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기 때문에, 동양철학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구에 필요한 이론이나 방법론은 모두 서양에서 왔습니다. 이 부분을 탄탄하게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동양철학뿐만 아니라 서양철학이나 미학, 혹은 예술사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GIST에 새로 부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대학원생 시절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 절반 이상이 컴퓨터 공학 전공이었습니다. 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어서 대학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또 GIST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이 분야의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점이 다른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GIST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경험과 GIST의 분위기가 맞물려 GIST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에게 철학이나 미학은 왜 필요하고, AI 시대에 동서양 비교철학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과학은 문제를 하나씩 분석하는 분석적 사유를 띄고, 철학과 미학은 문제를 크게 보는 직관적 사유를 띕니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철학과 미학은 전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철학과 미학이 분석적 사유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학과 미학의 역할 중 하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자신을 성찰하고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이나 과학자로서가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철학과 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가져올 미래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AI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AI의 사용 방법이나 선용 정도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하는 데 철학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AI는 인간의 신체와 감각적 영역까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미학은 감각의 영역을 사유한다는 점을 통해, 인간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GIST에서 시도해 보고 싶은 교육이나 연구, 그리고 개설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철학과 예술은 결국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물학이나 심리학 분야들을 연구, 교육 등을 통해 교류하고 싶습니다.

수업으로 서양철학을 기반으로 한 강독 수업과 현대 미학 수업을 개설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가르치고 있는 중국철학은 강한 실용성을 가집니다. 서양철학 또한 우리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관련 텍스트를 읽고 깨닫는 강독 수업의 형태로 열고 싶습니다. 현대 예술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얻는 통찰이 크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현대 미학 수업 또한 개설해 보고 싶습니다.

연구는 철학이 삶과 맞닿아 있는 지점을 연구하면서, 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술 측면에서는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두 학문이 각각 드러내는 세계의 측면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어떻게 이바지하는지를 계속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GIST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GIST 학생들은 학습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온 만큼 공부뿐만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배움을 의도적으로 추구할 때보다 직접 부딪히면서 얻어지는 경우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겪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들이 지혜를 발견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진 제공 = 안강훈 교수

이성준 기자
sjunlee7106@gm.gist.ac.kr

최진욱 교수 연구팀, 폐암의 '종양 친화적' 미세환경 형성을 규명하다

GIST 생명과학과 최진욱 교수 연구팀이 폐암의 '암이 자라기 쉬운 환경' 형성 과정을 규명했다. 폐암이 본격적인 종양으로 성장하기 이전부터 주변 조직이 암 성장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밝힌 것이다. 이번 연구 성과는 암 예방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2026년 4월 22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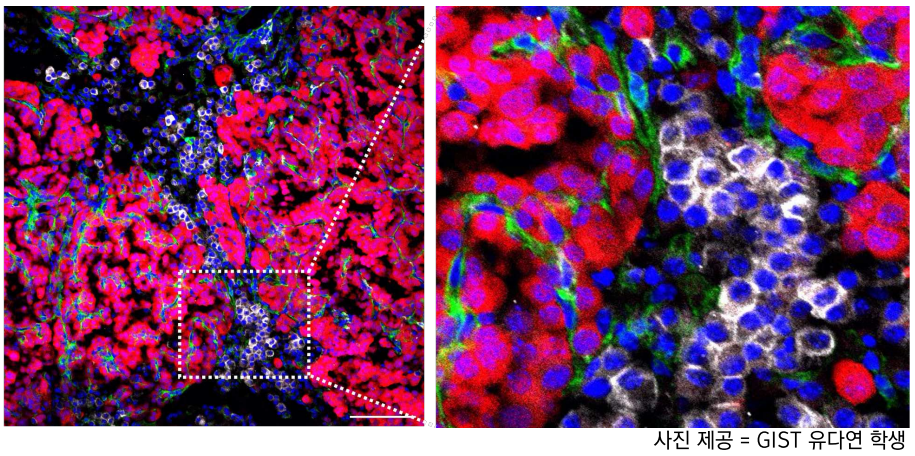

사진 제공 = GIST 유다연 학생

암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유전자 변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증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다. 암 연구는 오랜 기간 암세포의 돌연변이 및 증식 과정에 집중했다.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EGFR[1], KRAS[2] 유전자의 변이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암세포만으로는 종양의 형성·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암은 단순히 돌연변이 세포 하나가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질환이 아닌,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성장하는 질병이다. 암세포 주변에는 혈관세포[3], 섬유아세포(fibroblast)[4], 대식세포(macrophage)[5],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6] 등 수많은 구조물과 세포가 존재한다. 이러한 주변 환경 전체를 통틀어 종양 미세환경(tumor microenvironment, TME)이라 부른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암세포가 주변 조직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성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섬유화(fibrosis)와 암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섬유화는 조직 손상 후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치유 반응이다. 그러나 염증 반응이 만성화될 경우, 섬유아세포가 과하게 활성화돼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로 이어져 정상 조직 구조를 파괴한다. 폐 섬유화 환자에서 폐암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기존 암 연구는 대부분 이미 만들어진 종양 자체 또는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며 초기 단계에서 주변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연구진은 후자인 초기 변화 과정에 집중했다.

폐 섬유화 연구에서 시작된 질문

이번 연구는 폐섬유증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연구 중 발견한 현상에서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폐에 손상이 발생하면 줄기세포[7]가 활성화되고, 일시적인 중간 분화 단계인 이행 세포 (transition cell)를 거쳐 정상 폐세포로 분화한다. 그러나 연구진은 폐 섬유화가 진행된 조직에서 줄기세포가 정상 폐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행세포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무른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인간 폐선암 환자 조직을 분석한 결과, 폐암 조직에서도 유사한 '일시적 세포 집단(transient cell population)'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폐섬유화와 폐암이 일부 공통된 조직 변화 과정을 공유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암보다 먼저 형성된 '섬유화성 미세환경'

암세포는 본격적인 증식 전, 주변 환경을 '종양 친화적 미세환경'으로 바꾼다. 연구진은 이러한 환경을 '섬유화성 미세환경(fibrotic niche)'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KRAS 변이를 가진 폐포 상피세포인 AT2(alveolar type II)[8] 세포 주변에서 정상 섬유아세포의 병리적 상태의 섬유아세포로의 변화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섬유화 및 조직 재구성 관련 신호들이 증가했으며, 폐 섬유화 조직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유사한 특징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특히 이러한 섬유화성 미세환경이 단순히 종양 발생 후의 부산물이 아니라, 암 성장을 돕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변형된 섬유아세포는 이후 대식세포를 유도하고, 염증성 대식세포 및 종양 관련 대식세포(tumor-associated macrophage, TAM) 형성과 연결되며 염증성 미세환경을 강화한다. 결국 상피세포, 섬유아세포, 대식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이 '자기 강화적 회로'를 만들며 미세환경이 지속적으로 증폭되는 구조를 만든다.

KRAS 변이 세포는 주변 조직을 어떻게 바꾸는가

연구진은 KRAS 변이를 가진 AT2 세포가 단순히 스스로 증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변 조직을 재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은 KRAS 변이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AREG(amphiregulin, 암피레귤린)이다. AREG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9] 신호를 활성화하고, 조직 재생과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 물질이다. KRAS 변이를 가진 AT2 세포가 AREG를 분비하고, 이것이 주변 섬유아세포의 EGFR 신호를 활성화한다. 이후 섬유아세포는 정상 상태에서 섬유화성 상태로 재프로그래밍된다. 이렇게 변화한 섬유아세포는 세포외기질 재구성과 염증성 신호 전달을 촉진해 조직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은 일회성이 아니라, 주변 미세환경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우선 KRAS 변이를 가진 상피세포 자체가 먼저 변화하고, 이후 AREG가 분비되며 섬유아세포가 섬유화성 상태로 바뀌게 된다. 이어서 변화한 섬유아세포는 대식세포를 모집해 염증성 미세환경을 형성하고, 이 환경은 다시 상피세포의 변화를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염증성 환경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연구진은 AREG-EGFR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면, 섬유화성 미세환경 형성이 억제되고, 초기 폐암 발생 또한 크게 감소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폐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했다.

초기 폐암 조직을 정밀 추적하다

연구진은 어떤 세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일세포 RNA 시퀀싱(single cell RNA sequencing)과 면역 형광 분석법(immunofluorescence analysis)을 사용했다. 기존의 벌크(bulk) RNA 분석법은 조직 전체의 평균적인 유전자 발현을 보기 때문에 세포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어떤 세포가 변화하는지 등 단일세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단일세포 RNA 시퀀싱은 세포 하나하나의 유전자 발현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초기 폐암 조직에서 어떤 세포 상태가 형성되는지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연구진은 KRAS 변이를 유도한 마우스 모델을 활용해 폐암이 시작되는 초기의 조직 변화를 시간대별로 추적했다. 그 결과, 종양 형성 전부터 주변 섬유아세포와 대식세포가 변화하며 종양 친화적 미세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인간 폐선암 조직과 정상 폐 조직을 비교 분석해 마우스 모델에서 관찰된 섬유화성 미세환경 형성이 실제 인간 폐 조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인간 AT2 세포 기반의 삼차원 인공 장기인 오가노이드(organoid) 모델을 통해 KRAS 변이 세포가 주변 섬유아세포를 재구성하며 섬유화성 미세환경을 형성하는 과정을 검증했다.

폐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이전의 암 치료 대부분은 종양 제거에 집중했으나, 최근에는 초기 발견이 중요해지고 있다. 암을 최대한 빨리 발견할수록 생존율은 높아진다. 이번 연구에서 초기 폐암 과정에서 AREG가 매우 높게 나온 점을 활용해, 초기 발견의 마커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더불어 치료 방식의 발전 가능성도 열었다. 폐암의 변이에는 크게 KRAS와 EGFR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임상적으로 EGFR 변이에는 EGFR 표적 치료를, KRAS 변이에는 KRAS 표적 치료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는 KRAS 변이 암세포가 주변 환경을 바꿀 때 EGFR 신호(AREG)를 이용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최 교수는 "KRAS 변이 폐암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EGFR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면 암세포가 주변 미세환경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억제할 수 있어, 폐암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폐와 면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폐에 손상이 생겼을 때, 줄기세포들의 복구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줄기세포와 미세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조직에서 발생한 손상을 뇌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주요 목표다. 또한, 조직 손상이나 초기 염증의 경험이 이후에도 세포와 미세환경에 '기억(memory)' 형태로 남아, 미래의 손상 반응 또는 질병 발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원리에 대한 연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꼽았다.

백현빈 기자
baekhyunbin1113@gm.gist.ac.kr

1 세포 표면의 수용체 단백질 생성 유전자로, 돌연변이 발생 시 세포가 무한히 분열
2 세포 성장과 분열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 내 분자 스위치로, 돌연변이 발생 시 세포의 무제한 자율 증식 및 암화를 유발
3 혈관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세포
4 동물 조직의 구조적 틀(기질)을 생성하며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5 인체 면역세포의 일종, 체내에 침입한 병원균이나 유해 물질 등을 처리하는 세포
6 세포 밖 공간을 채우고 있는 구조물 및 분자들의 집합
7 우리 몸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바뀔 수 있는 원시단계의 세포
8 폐포를 구성하는 상피세포
9 상피세포 표면에 위치하여 세포의 성장, 분화 및 생존을 조절하는 세포막 단백질

스타벅스, 5 · 18에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

지난 5월 18일에 스타벅스코리아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와 함께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고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삽화 = 서연경 기자

5·18에 '탱크데이', 부적절한 광고 문구로 거센 비판

지난 5월 18일 오전 10시에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 텀블러' 판매를 시작해 공식 홈페이지에 홍보 게시물을 게시했다. "5/18"이라는 날짜 위·아래로 "탱크데이(Tank Day)"라는 문구가 작성됐으며,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함께 사용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압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며 불매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광주전남추모연대는 논란 당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피맺힌 역사를 한낱 상업적 마케팅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 참사"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의회, 민형배 당시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등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구 수정에서 공개 사과·역사 교육까지

논란 직후 안일한 대처로 인해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문제의 문구를 "탱크텀블러데이", "작업 중 딱~"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가 오히려 여론을 자극하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1차 사과문이 게시됐으나 구체적인 사건 발단 경위와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이 언급되지 않아 다시 논란이 됐다. 결국 당일 오후 7시께 스타벅스코리아 손정현 대표 명의의 2차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손 대표를 해임했으며 이벤트를 총괄 기획한 담당 임원도 즉각 해임했다. 이후 정 회장은 사과와 함께 역사 교육을 포함한 추후 대처를 약속하는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낭독했다. 역사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6월 본사 및 전국 매장에서 진행됐다.

5월 26일 신세계그룹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고 일부 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마케팅 의사결정 체계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6월 17일 경찰은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필요시 추후 압수수색을 통해 신세계그룹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정 회장과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현재 스타벅스코리아는 역사 교육 이후 단계적으로 영업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향후 정 회장이 광주를 직접 방문해 사과할 의향이 있으나, 진상 규명을 우선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박현서 기자
hspark5091@gm.gist.ac.kr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사라지다

지난 4월 27일, 국내 모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가 자진 폐쇄를 발표했다. 이는 경찰의 지속적인 수사망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1일부터 시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삽화 = 김나현 기자

국내 최대 이용 만화 사이트가 불법?

폐쇄를 발표한 해당 사이트(이하 사이트 A)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로, 국내 웹툰뿐만 아니라 일본 만화, 웹소설 등을 무단으로 유통했다. 운영진은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접속 차단이 이뤄질 때마다 도메인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이 시밀러웹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해당 사이트의 연관 페이지 조회 수는 42억 9309만 회, 연간 누적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 명에 달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방문 횟수는 약 1억 3000만 회, 순 방문자 수는 620만 명, 페이지뷰는 약 11억 5000만 회로 집계됐다. 이 중 방문 횟수와 페이지뷰는 동 시간대 합법 플랫폼을 능가했다. 사이트 A는 이러한 이용자 트래픽을 기반으로 배너광고, 도박광고 등을 유치해 수익을 냈다. 업계는 이에 따른 월 피해액을 약 398억 원으로 추산했다.

'불법복제와 전쟁' 선언, 저작권법 개정

이번 사이트 폐쇄의 주요한 이유로 꼽히는 것은 올 2월 10일 개정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이다. 이 중 접속차단제와 긴급차단제는 올해 5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접속차단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에 경고나 삭제뿐만 아니라 접속 차단까지 가능하게 한다. 긴급차단제는 필요할 경우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속을 먼저 차단한 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기존에는 심의 과정을 거치는 사이 주소 뒤 숫자만 늘린 다른 사이트로 대피하는 일명 '도메인 호핑' 수법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두 제도로 사이트 차단이 더욱 수월해졌다.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는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처벌 강화가 있다. 해당 개정을 통해 법원은 고의적인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처벌 또한 기존의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로 강해졌다. 그 외에도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의 불법화, 불법복제물 정의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끝나지 않은 싸움, 사이트 종료 후 현황

사이트 A가 자진 폐쇄하며 국내 만화

〈6면에 계속〉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웹툰 시장에 반해, 수익이 불법복제물로 인해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는 업계의 고질병으로 꼽혀 왔다. 웹툰 업계가 별다른 이상 없이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4분기 네이버 웹툰 등 플랫폼들의 매출이 오히려 감소한 게 그 증거다. 폐쇄 후 나흘 만에 합법 플랫폼인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리디의 앱 다운로드 수는 각각 31%, 77%, 60% 올랐다. 업계인들은 매출 성장도 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1분기 주요 작품 10개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신규 회차가 24시간 내 불법 유통되지 않은 주엔 결제액이 평균 대비 23% 증가했다.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던 독자들이 합법 플랫폼으로 돌아온 것이다.

사이트 A의 주요 운영자는 일본으로 귀화한 상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지와의 연락을 취해 6월 11일 용의자를 발견해 체포했으며, 증거품들과 함께 한국으로 송환받았다. 이는 2002년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한 최초의 일본 국적자 인도이다.

그러나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사이트 A가 공유한 불법복제물은 아직 차단되지 않은 타 불법 사이트들에 의해 재복제되기도 한다. 사이트 A의 이름을 사용한 새로운 사이트가 생기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텔레그램을 통해 긴급 차단에 대응하거나, 일부 작품 열람에 사이트 내 활동으로만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내야 하는 등 더욱 정교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3차 회의에서 "불법 유통은 범죄 행위이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는 8월 11일 법률 시행을 통해 더욱 완전한 불법복제물 근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는 8월 11일 법률 시행을 통해 더욱 완전한 불법복제물 근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

장도윤 기자
doyoonj1109@gm.gist.ac.kr

40년 만의 재결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온다

1986년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이후 수차례 무산됐던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특별법 통과로 40년 만에 현실이 됐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5인 중 159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통합으로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거듭난다.

광주 · 전남 통합의 배경

1986년 광주가 전라남도(이하 전남)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전라남도청 이전 문제를 계기로 통합 논의가 처음 시작됐다. 이후 1995년, 2001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논의가 이어졌으나 번번이 무산되다 네 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번 통합을 이끈 주요한 동력은 지방 소멸 위기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광주도 외부 유입 인구가 2015년 8만 3098명에서 지난해 6만 2741명으로 10년 동안 24% 넘게 줄었다. 이 같은 복합적 위기에 대해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이하 김 단장)은 과거에는 도로·철도·항만 같은 SOC 확충이 핵심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산업, 최근에는 인구와 공동체 문제가 주요 과제라고 전했다. 김 단장은 이러한 문제는 단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통합을 통해 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통과 이후 달라진 점은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법률에 명시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라는 명칭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일괄 개정된다. 출범 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시장)은 장관급, 4명의 부단체장은 차관급으로 대우받는다. 통합시장은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에 따라 역대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도 주목된다.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통합특별시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됐으며, 농협중앙회·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0개 핵심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특별법에는 산업·재정·문화·환경에 걸친 광범위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전기사업 인허가 특례,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에너지 생산부터 산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체계가 구축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집적단지·AI도시 실증기구 지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첨단의료·항공우주 특화단지 등 미래산업 집적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AI-문화콘텐츠 융합 산단,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이 포함됐으며 농어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푸드테크 산업 육성, ▲첨단 농식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 체계가 규정됐다.

통합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통합이 순탄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주 청사 소재지다. 순천 동부청사와 무안 전남도청, 광주시청 세 곳을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주 청사는 끝내 확정하지 못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결국 초대 특별시장이 결정할 사안으로 넘겨졌다.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거세다. 전남도청 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주민투표 없이 결정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지방의회 동의로 주민 의사를 대체하려는 것은 지능적인 입막음"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통합에 있어 주민투표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며 주민투표를 시행하면 수억 원의 비용이 추산되고, 실시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2026년 7월 통합 출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직 통합 작업도 만만치 않다. 전남은 특별법 통과 직후 행정통합 전담 조직인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신설하고 공무원 106명에 대한 대규모 수시 인사를 단행하며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인구 139만 명의 광주와 177만 명의 전남 의원 정수 배분, 두 지역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 등 풀어야 하는 실무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남 광주 통합 인구 구성

행정 체계

통합 전	통합 후 (2026.07.01 ~)
명칭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전남광주통합광역시 약칭 광주특별시
단체장 직급 차관급	장관급
부단체장 각 1~2명	4명 (차관급)
법적 지위 광역시 / 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청사 광주시청 / 무안 전남도청	광주·무안·순천 3곳 분산 운영

경제 규모

통합 전	통합 후 (2026.07.01 ~)
GRDP 광주광역시 54.8조 전라남도 104조	159조 원 (합산)
정부 재정 지원 -	4년 간 최대 20조 원
공공기관 이전 -	2차 이전 우선 대상 농협중앙회·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0개 유치 목표

삽화 = 이시우 기자

오는 7월 1일 광주와 전남은 40년 만에 하나의 행정 단위로 다시 묶인다. 특별법이 통과되며 법적 틀은 마련됐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들이 출범 이후를 기다리고 있다. 통합의 성패는 법안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실행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나윤 기자
kimnayoon@gm.gist.ac.kr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editor@gist.ac.kr
010-2040-7157
@gistnews._.official
•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유로운 주제의 기고문 환영합니다! • 궁금한 일이 있나요? 지스트신문에 취재 요청해주세요!

Starbucks Faces Backlash Over May 18 "Tank Day" Promotion

On May 18, Starbucks Korea faced strong criticism after launching a promotion called "Tank Day". The promotion also included the Korean slogan "Thwack it on the table!" The company later posted official apology statements, and Shinsegae Group Chairman Chung Yong-jin also made a public apology.

"Tank Day" Promotion on May 18 Causes Criticism

At 10 a.m. on May 18, Starbucks Korea started selling its Tank Tumbler and uploaded a promotional post on its official website. The post featured the words "Tank Day" above and below the date "5/18," along with the slogan "Thwack it on the table!",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phrase "책상에 탁!"

Many people criticized the promotion on social media and online communities. They said the words reminded them of the military tanks used by the martial law troops during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torture and death of democracy activist Park Jong-chul. As a result, many people argued that the promotion disrespected an important part of Korean history by mocking and insulting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on its 46th anniversary. Some consumers also started a boycott.

Civic groups and politicians also criticized the promotion. On the same day, the Gwangju-Jeonnam Memorial Solidarity released a statement of condemnation saying that the campaign was not just a simple mistake but a serious insult that turned Korea's painful democratic history into a marketing tool. The Gwangju City Council and several politicians, including Min Hyung-bae (who was the Democratic Party's candidate for the Gwangju-Jeonnam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n), also voiced their criticism.

From Revising the Advertisement to Public Apologies

Starbucks Korea's first response made the situation even worse. The company changed the promotional phrases to "Tank Tumbler Day" and "Perfect for Work". However, many people thought these changes only fueled public criticism, where Starbucks eventually deleted the post.

The company's first apology also received criticism because it did not clearly explain how the incident happened or mention its connection to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round 7 p.m., Starbucks Korea released a second apology under the name of CEO Son Jeong-hyun.

After the controversy, Shinsegae Group dismissed both the Starbucks Korea CEO and the executives who planned the promotion. Chairman Chung Yong-jin also apologized publicly and promised to provide history and social awareness education for employees. The training was held at the company's headquarters and stores across the country in June.

On May 26, Shinsegae Group announced the results of its internal investigation. The company said it found no evidence that the promotion was intentional although it acknowledged that the investigation had limitations because some employees refused to hand over their mobile phones. However, they admitted that there were problems in its marketing decision-making process.

On June 17, police questioned the head of Shinsegae Group's audit team as a witness. They said they may conduct searches and seizures later if more evidence is needed. Meanwhile,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have pressed charges against Chairman Chung and other people involved.

Starbucks Korea has gradually returned to normal business after completing its history education program. Shinsegae Group also said that Chairman Chung plans to visit Gwangju and apologize in person, but no date has been decided because the company is focusing on finding out exactly what happened first.

Reporter Park Hyunseo
hspark5091@gm.gist.ac.kr
Translated by Dayeon Lee

The 1st GI-KEN Games: A New Bond Connecting Two Schools

On May 16, GIST and KENTECH held the "GI-KEN Games" (Jiken-jeon), the first joint athletic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chools, on GIST campus. Beyond wins and losses, students from both institutions shared a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sportsmanship, taking the first step toward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their student communities.

The 1st GI-KEN Games: Scenes from the Field

The GI-KEN Games featured three sports: soccer, badminton, and basketball. GIST claimed hard-fought victories across the board, winning the soccer match 1-0, sweeping every badminton event 2-0, and taking the basketball game 40-36.

Results aside, what stood out throughout the competition was the sportsmanship and mutual respect on display. Park Seon-woo ('26, Challenge and Exploration Program), who played in the soccer match, applauded every athlete who took part in the friendly rivalry, saying, "It was great to see everyone playing such a gentlemanly game." A KENTECH student who competed in mixed doubles badminton also shared a similar sentiment: "I'm glad I was able to make such good memories. I hope opportunities like this continue in the future."

The People Behind the GI-KEN Games

GIST and KENTECH previously co-hosted a joint academic exchange festival in 2024. Hwang Ui-hyeon, Chair of the KENTECH Student Council's Preparatory Committee (hereafter, the KENTECH Committee Chair), explained that the event was designed to build on that momentum: "We wanted to expand exchange between the two schools around two pillars — 'athletic exchange' in the spring semester and 'intellectual exchange' in the fall." Kim Yeon-woo, Chair of the GIST Student Association (hereafter, the GIST Committee Chair), said, "We planned the GI-KEN Games to broaden our existing exchanges into something more participatory for students." An athletic competition was chosen precisely because it allows large numbers of students to connect and take part regardless of their major or extracurricular background. The GIST Committee Chair added that the Games were about "exchange" rather than "competition,"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relationship the two schools will build going forward.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chools continued throughout the preparation process. The KENTECH Committee Chair credited "a solid working partnership" for giving the team great confidence in preparing joint events in the future. The GIST Committee Chair added, "Beyond simply co-running a single event, we confirmed that our student communities are fully capable of working together," assessing the GI-KEN Games as a foundation for more diverse forms of exchange ahead.

〈The whole article in the website〉

Reporter Lee Dayeon
dayeon096@gm.gist.ac.kr
Translated by Junil Byeon

오피니언

내부칼럼

동아리의 모든 순간에, 동아리연합회가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내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동아리별로 활동 진행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전달받아 검토한 이후 내부 심의를 거쳐 각 동아리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동아리별로 예산을 통해 구입한 물품과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각 동아리별 예산 분배 결과를 발표하고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동아리방을 배정하여 동아리 활동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동아리별로 배정받은 동아리방의 관리 및 동아리 장비와 시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한편 동아리연합회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여 동아리 지원 업무와 관련한 민원 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의뢰를 요청한 동아리에 한하여 해당 동아리의 교내 행사 일정을 홍보하는 홍보 게시물을 제작하여 지스트 구성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한편 동아리연합회는 예산과 공간 배정뿐 아니라 외부 행사 기획 및 진행의 대외적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처음 개최된 GIST와 KENTECH의 연합체육대회의 기획 과정에서 총학생회와 협력하였으며 인력 지원을 통하여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오는 11월에 진행될 국내 6개 과학기술원들의 연합체육대회(STadium)의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행사 기획, 참여 동아리 모집 및 참여 인원 파악, 관련 예산 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행사인 만큼 예산 집행과 일정 조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들이 각자의 색깔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발생하는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원만한 활동 진행을 위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동아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반하여 실제 기숙사 내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동아리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와 관련한 동아리 지원 예산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 하는 실정이 존재하므로 교내 동아리들에 전폭적인 예산 배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동아리연합회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며 내부 심의를 통하여 동아리 활동 세칙을 개정하고 앞서 언급했던 문제점들을 점차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동아리연합회는 앞으로도 교내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GIST 동아리연합회
2026gistcu@gmail.com

지스트신문 뉴스레터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스트신문 요약
뉴스레터 구독 바로가기

만평

삽화 = 서연경 기자

사령

■임명

수습기자 김민정 (환경,24)
김소현 (도전,26)
김현지 (도전,26)
변준일 (생명,23)
이다연 (도전,25)

지스트신문
2016년 4월 11일 창간
발행인 임 기 철
주 간 홍 성 민 편집장 이 다 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제1학생회관 3층 GIST신문사
전 화 062-715-5810
이 메 일 editor@gist.ac.kr
웹사이트 gistnews.co.kr
인스타그램 @gistnews._.official